“먹는 즐거움·건강으로 버무린 세계 속 ‘광주 김치’ 담글게요”

‘김치 담그는 법’ 교과서에 소개
‘잘 만든 김치’ 정지영 대표

“지역 대표 김치 부재 아쉬워” 지난해 사업 시작
소량·다양한 제품 온라인 판매 … 해외서도 주문
세월호 유족·한부모 가정·수재민 등에 김치 기부

“생산자 이익을 추구하기에 앞서,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과 건강까지 줄 수 있는 김치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기본을 지키며, 저희 가족이 만드는 김치가 광주를 대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잘 만든 김치’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2월 김치사업을 시작한 정지영(여·49) 대표는 최근 특별한 경험을 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김치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게 된 것이다. 정 대표는 다양한 김치에 대한 소개 및 담그는 과정을 사진과 함께 설명했고, 이 내용은 오는 2학기부터 광주지역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맛과 예향의 도시 광주에 어울리는 김치를 생산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낯선 분야에 도전할 때만 하더라도 주위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까지 휴학하고 어머니를 돕고 있는 자녀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유통업체 ‘빅마트’를 운영했던 하상용(54) 대표가 남편으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잘 만든 김치’는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유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체육관을 찾아 김치 500㎏을 전달했다. 지난해 8월에는 엄마가 없어 반찬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광주지역 한 부모 가정에 김치 1t을, 그해 7월에는 물난리 피해를 겪은 춘천을 찾아 수재민들에게 김치 1t을 기부했다. 그녀는 지난 2013년 광주김치문화축제에서 광주광역시장상을 수상한 것보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환원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광주가 김치축제 등을 개최하면서 광주김치를 널리 알리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은 여전히 부재하다고 아쉬워했다. 그래서 광주를 넘어 세계인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김치를 만들고자 ‘잘 만든 김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역에 김치업체들은 많지만 소량으로 다양한 김치를 판매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맛있는 김치가 있더라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 먹기 힘든 상황입니다. 배추김치, 갓김치는 물론 보쌈김치, 동치미, 백김치 등 다양한 김치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저희의 특징입니다.”

그녀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자신이 만든 김치를 직접 소개하고 있다. 덕분에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주문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매주 한 건 이상 해외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거주하는 한인들이 SNS를 통해 저희 김치를 접하고 주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저희 김치를 알게 된 한 재미교포가 하와이에서 출산을 앞두고 주문했는데 그 맛을 잊지 못할 것 같다며 감사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외국으로 김치를 보내려면 포장과 배송에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한국의 맛, 광주의 김치를 기억하는 분들께 앞으로도 ‘잘 만든 김치’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나영이 지킴이’ 캠페인 동참

삼성전자 광주자원봉사센터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부가 3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영이 지킴이’ 동참 캠페인을 실시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임직원들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의 후원자를 일컫는 ‘나영이 지킴이’로 동참하고, 2015년에 공표할 UN의 글로벌 의제에 ‘아동보호’항목을 포함하는 것에 서명했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정기후원금은 저소득층 피해아동 심리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총 328명의 임직원이 ‘나영이 지킴이’가 됐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이와 함께 지난 2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아동폭력 예방교육인 CAP (Child Assault Prevention)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후원, 광주지역 아동센터 273개소 4000여명의 아동들에게 10개월간 아동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 고향주부모임 밑반찬 봉사활동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수)와 고향주부모임봉사단(단장 신상엽)이 농촌지역 홀몸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김치와 밑반찬을 배달, 호응을 얻고 있다.

고향주부모임봉사단은 3일 영암 신북농협 지역문화복지센터에서 김치와 장조림, 나물 등을 만들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사랑을 배달하는 밑반찬 나누미사업’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도의 2014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전남농협과 신북농협(조합장 이정기)은 오는 10월까지 300여명의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 전달과 가사도우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웃는 조직이 투명성이 높다

LH 광주전남본부, 최정수 국민권익위 강사 초청 특강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노홍렬)는 최근 본부 사옥에서 ‘웃는 조직이 투명성이 높다’를 주제로 최정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를 초빙,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특강은 직원들의 부정부패 척결의식 강화 및 청렴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정수 강사는 ‘청렴과 국가의 흥망성쇄’ 및 ‘황희 정승과 이원익 정승’에 대한 사례를 들며 교육을 가졌다

노홍렬 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CLEAN ABC 청렴캠페인 등 LH 고유의 특화된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올해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문화조성을 위해 내부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협력업체와 Clean 상생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청렴실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국 빈민운동 대부’ 정일우 신부 선종

‘파란눈의 신부’로 유명한 빈민운동의 대부 정일우 신부가 지난 2일 오후 7시 40분 지병으로 선종했다. 향년 79세.

아일랜드계 미국인인 정 신부는 1960년 9월 예수회 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1963년 실습이 끝난 뒤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4년 뒤 고등학교 은사인 고(故) 바실 프라이스 신부(2004년 선종)의 영향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

정 신부는 프라이스 신부와 함께 서강대에서 강의하던 1972년 학생들이 유신반대 운동을 하다 당시 중앙정보부에 잡혀 들어간 것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운동에 눈을 떴다. 이때 정 신부는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8일 동안 단식하기도 했다. 이후 개발 논리에 밀려 비참하게 살아가는 빈민들의 삶을 접한 뒤 청계천과 양평동 판자촌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빈민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빈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의식 교육을 하고 판자촌 철거 반대 시위를 주도하면서 빈민의 ‘정신적 아버지’로 자리잡았다.

지난 1998년 귀화한 뒤 충북 괴산에 농촌 청년 자립을 돕기 위한 누룩공동체를 만들어 농촌 운동에도 힘을 쏟았다. 2004년 70세 생일을 앞두고 단식 도중 쓰러졌다가 이듬해 중풍으로 다시 쓰러진 뒤 모든 활동을 접고 요양해 왔다.

빈소는 성모병원 영안실이며, 장례미사는 4일 오전 8시 30분 예수회센터 3층 성당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중진공 광주지역본부, 영아보호소 봉사활동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상봉)는 최근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 아기돌보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중진공 광주전남본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신순례 씨 장남 김동열군 신양수(前 광주일보 총무부)·박영임씨 사녀 현정양=7일(토) 오후 1시 고흥 좋은자리뷔페 061-834-5700.

▲박병오(해동활어 대표)·최은숙씨 장남 봉선군 김길성(은혜화원 대표)·노춘희씨 장녀 은혜양=7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 JS웨딩컨벤션 3층 그레이스홀.

알림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동창회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이규종)=5일(목)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종친회

▲재광 경주 김씨 종친회 월례회모임=5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 동구 금남로 맛집 한겨레 010-6455-6296.

모집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모집=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 댄스 및 에어로빅. 지원자격은 대학생 및 현업 종사자 061-330-4169.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합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합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담양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황새축구클럽=축구에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두암동 거주자 대 환영) 010-8216-8585.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효사랑넷 봉사단=뜸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부음

▲최양기씨 별세 윤현석(광주일보 정치부 차장)·태림(하나증권 차장)씨 조모상 강현미(광주문화재단)씨 시조모상=발인 4일(수) 광주역장례식장 3호실 062-264-4444.

▲홍옥자씨 별세 박종수(화순군청)·신자(광주시 남구청)씨 모친상 이현문(창원 풀잎마을 물리치료실장)·오주승(전 전남도청 대변인)씨 빙모상 =발인 5일(목) 화순전남대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1-379-7434.

▲김학준씨 별세 승진·승민·승혜·승복씨 부친상=발인 5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101호 故최웅엽 님(남/71세)
子/子婦 : 최용훈/김지원
未亡人 : 김옥희 孫 : 최예성
• 발 인 : 6월 4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102호 故이진표 님(남/85세)
子/子婦 : 이관형
女/壻 : 이윤정/도일준
• 발 인 : 6월 4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6

402호 故심현자 님(여/68세)
子/子婦 : 임경환/최자연,임경수/김미화 女/壻 : 임민숙,임영숙/강인철
• 발 인 : 6월 5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14

孝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